

지역 소식통

완주군, 관내 군 부대 대상 전입장려 홍보

완주군이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를 해결하고자 관내 군 부대 소속 부대의 주소 전입을 장려하기 위한 홍보에 나섰다.

20일 완주군은 최근 봉동 106 연대 양회권 주민협의회의 면담을 시작으로 지난 17일에는 완주 4대대 전 응 대대장과의 만남의 자리에서 "인구문제는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데 의견을 모으고 소속 부대의 전입을 위해 군 부대가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완주 4대대는 연 만명 이상의 예비군 훈련생에게 완주군의 행복지원정책을 홍보할 수 있는 가이드북과 안내문을 배부하고 미디어 전광판에 '어서와 인구망'을 개설해 지속적으로 전입장려를 홍보할 수 있도록 완주군의 요청을 흔쾌히 수용하기도 했다. /원주=이종복 기자

김제시, 소상공인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추진

김제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지원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날 31일 지자체 조례 개정 없이 공유재산심의회 의결만으로 공유재산 사용·대부료를 낮출 수 있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시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 소유 공유재산의 사용·대부료 요율을 5%에서 최저 1%까지 대폭 인하할 방침이다.

지원방법은 이미 2020년도분 임대료를 선납한 소상공인 등에는 인하분을 환급해주고, 사업장 폐쇄 명령 및 휴업 등 영업활동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의 임대기간을 연장해 줄 수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시립도서관내 매점, 벽골제아리랑사업소내 휴게음식점, 숙박시설 등 총 22개소로 약 1,700만원이 지원되며 재난기간 연장시 추가로 임대료를 감면할 계획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시설물 제한적 개방 추진

완주군, '사회적 거리두기' 15일까지 추가 지속 추진 모악산 축구장 등 無관중 운영·자연휴양림 산책 가능

완주군이 코로나19 감염 확산 위험도 등을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 추진하면서 시설물들의 제한적 개방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완주군은 20일 오전 군청 4층 영상회의실에서 박성일 군수 주재로 '코로나19 관련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정부 방침에 맞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날로 종료됐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는 오는 5월 5일까지 16일 동안 추가로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완주군은 이와 관련, 행정명령 대상인 종교시설과 유형시설, 실내 체육시설, 학원 등은 기존의 '운영중

단' 권고를 '운영자제' 권고로 변경하되 방역지침 준수는 현행처럼 유지하기로 했다.

완주군은 특히 코로나19의 추가 확산자가 전국적으로 크게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도 안심할 수 없는 '심각' 단계인 만큼 축제와 대규모 기념식, 집회 등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요불급한 모임이나 외출, 행사 등은 자체해 결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완주군의 각종 시설물 개방 여부와 관련해서도 실내·밀집·착석 시설은 종전대로 운영을 불가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일부 시설에 대해선 극히 제한적으로 개방하기로 했다.

예컨대 고산자연휴양림의 경우 방문객 산책 등은 실외·분산·이동에 해당하는 만큼 허용하되, 숙박시설은 운영하지 않기로 했다.

도서관의 경우 자료실 도서 대여나 반납 서비스는 실시하되 열람실을 개방하는 것은 불가하며, 장난감 도서관도 장난감이나 놀이교구를 빌려주는 것은 허용하되 불룩 만들기 놀이방 개방은 안 한다는 방침이다.

실외·밀집·착석 시설인 모악산 축구장이나 완주군 문화체육센터 축구장, 실외 테니스장 등은 관중이 없는 무관중 운영만 허용하기로 했다.

완주군의 한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 추진하되 시설물의 경우 극히 제한적으로 개방을 허용하지는 않겠다"라며 "지금까지 실시해온 현장방역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주=이종복 기자



김제시 성덕면은 20일 주민들과 함께 쓰레기 상습 투기지역인 탄상마을 입구에 다년생 철쭉과 잔디 등을 활용한 양심화단을 만들었다.

'양심화단 조성' 시민 호응

김제시 성덕면, 쓰레기 투기지역에 다년생 꽃으로 화단 만들어

김제시 성덕면(면장 강기수)은 20일 주민들과 함께 쓰레기 상습 투기지역인 탄상마을 입구에 매년 꽃을 볼 수 있는 다년생 철쭉과 잔디 등을 활용한 양심화단을 만들어 지역민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탄상마을 양심화단 조성지는 그동안 상습적으로 쓰레기 불법투기가 빈번했던 곳으로 각종 생활쓰레기 적체로 주민들에게 불쾌감을 안겨 주었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양심적으로 쓰레기를 버리지 않을 방법을 모색하여 양심화단을 조성하게 되었다.

이에 성덕면 주민자치위원회 직원들은 탄상마을 공터 110㎡에 서해안 고속도로 IC가 주변에 있는 점을 고려해 화려한 분홍색 철쭉 300주와 잔디 200장을 활용해 손수 땅을 고르고 묘목을

식재하면서 추진되었다. 또 묘목 식재 후에는 "쓰레기가 아닌 여러분의 양심으로 꽃을 피우주세요"라는 양심화단 표지판도 설치하여 눈길을 끌었다.

이날 조혜영 성덕면 주민자치위원장은 "주민들과 서해안 고속도로를 오가는 사람들이 이제 쓰레기 대신 화려한 철쭉 꽃을 볼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손질이 필요한 곳이 있으면 항상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강기수 성덕면장도 "깨끗하고 아름다운 성덕면 만들기에 참여해 준 주민들에게 감사 드린다"며 "이번 양심화단은 농촌미관을 증진시키고 불법쓰레기 투기 방지 역할을 톡톡히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금구면 생활치료센터 운영협조에 감사 전달

권영진 대구시장, 김제시민에 진심어린 고마움 편지로 전해

김제시(시장 박준배)는 지난 3월 11일부터 4월 5일까지 26일간 금구면 생활치료센터가 무사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준 것에 대해 대구 시장이 감사의 마음을 담은 편지를 김제시장 앞으로 보내왔다고 밝혔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서한문을 통해 "국가적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생활치료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배려해준 박준배 김제시

장을 비롯한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김제시에 고마운 마음을 표했다.

김제시에서는 금구면 생활치료센터에 169명의 코로나19 환자가 입소하자 20여 점의 현수막을 걸어 환영의 뜻을 밝혔으며, 관내의 종교·사회단체·기관 등은 앞다투어 간식을 지원함으로써 입소자들의 허한 마음을 달래주었다.

또한, 김산·백석·중앙 초등학교 학생들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손편지를 써서 환자들의 쾌유를 기원하고, 지평선살로 만든 누룽지를 전달하는 등 응원과 도움의 손길은 끊이지 않고 이어졌다.

이에 대해, 대구시장은 "김제시민들의 온정은 모두에게 감동을 주며 환자들이 완치되는데 큰 힘이 되었다"면서 "어려움 속에서 손을 내밀어준 시장님과 김제시민 여러분의 마음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다짐하였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생활치료센터 운영으로 인해 애쓰신 입소자, 의료진, 대구시 관계자분들께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마음을 전한다"면서 "대구시가 하루빨리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김제시민 모두 성심과 열정을 다해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청하면, 복지기동대 주거환경 취약계층 봉사활동 펼쳐

김제시 청하면 복지기동대(대장 유월영)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강남철) 위원, 공무원 등 25명은 20일,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구를 방문해 집 치워주기 봉사활동을 펼쳤다.

대상자는 독거노인으로 아들의 폐업으로 쓸모없어진 부자재(실제)를 어떻게든 고물로라도 팔아보려고 가져와 마당에 가득 쌓아놓은 것이 쓰레기장 처럼 되어버렸다고 한다.

예전에는 기계를 이용하여 실재에 감겨 있는 실을 제거한 후 고물상에 팔아 경제적인 도움을 받았으나, 작업을 하다 여러 번 손을 다친 후에는 포기하고, 차마 어떻게 치워줄 엄두를

내지 못하고 방치한 채 살았다고 한다.

이 소식을 들은 복지기동대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도움을 주고자 흔쾌히 집 치워주기 봉사에 참여하여 혼란한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유월영 복지기동대장은 "산더미처럼 쌓인 폐기물을 어떻게 치우나 걱정이 앞섰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함께하여 즐겁게 일을 잘 마쳤고, 이제 어르신이 쓰레기를 치운 쾌적한 마당에서 여유롭게 산책을 즐길 수 있게 됐다"라고 말했다.

허정구 청하면장은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들께 진심으로 감



사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살기 좋은 청하면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라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정철우 완주 부군수, 공직업무 변화 필요성 강조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 세계적 대유행)으로 모든 사회활동이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철우 완주군 부군수가 공직 사회의 업무 변화를 강조해 이목을 끈다.

20일 완주군에 따르면 정 부군수는 이들 전 군청 4층 영상회의실에서 '코로나19 관련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방역대책 추진 현황과 해외 입국자 관리 현황,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등 11개 현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정 부군수는 이날 회의석상에서 "코로나19가 팬데믹 상황으로 번지면서 온라인 생활의 범위가 기존의 쇼핑, 강의를 넘어 작품전시와 감상 등 문화활동 영역까지 확산되고 있다"며 "완주군도 이러한 변화에 발 맞춰 대

민업무 중 가능한 부분은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등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부군수는 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읍·면 복지 담당자의 업무가 과중되고 있다"면서 "전 부서에서 업무 지원에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정 부군수는 일부 직원에게 업무가 과중되지 않도록 읍·면장들에게 적절한 업무 배분을 당부하는 메시지를 보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완주군은 20일부터 완주군민 전체에게 4인 가구 기준 20만원을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며, 읍·면별 지정지급처에서 수령할 수 있다. /원주=이종복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치즈

벨기에 출신 지평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